

“누나·동생들 기억 흐릿...통일되면 北 가족에 제 소식 달길”

6·25전쟁 74주년

〈중〉실향민 조병준씨

경기도 개풍군 출생...1952년 ‘자원 입대’ 국가유공자 정전협정 체결 70년째...“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어”

“저도 누나와 동생들 얼굴이 기억 안 나는데 북쪽 가족도 그렇겠지요. 그저 소식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조병준(91·사진)씨는 올해가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하며 30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만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1952년 11월 20일 20살의 나이로 한국전쟁 중 자원 입대했다. 하지만 조씨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개풍군 서면 개성리로, 북한 출신인 그가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그의 입대 배경은 좀 더 과거로부터 시작된다.

조씨는 위로 조금례씨와 아래로 여동생 조금자·조명자씨, 남동생 조병권·조병수씨 등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경기도 개풍군 정교면 탄동리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정미소를 운영했다.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로 의용군을 모집하기 위한 마을 이장의 소집령에 개성 시내의 선죽학교로 이동했다.

이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군인



으로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누나가 조씨를 외가로 파신시켰지만 전쟁 통에 낯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

람의 신고로 그는 개성형무소에 끌려갔다.

조씨는 “조사관이 ‘왜 여기 근처에 있느냐’고 추궁했다. ‘먹을 것이 없어 들어갔다’고 하자 죄가 없고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로 석방됐다”며 “그때 조사관이 ‘의용군이나 도피자 같은 반동분자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수십년 전 그때를 회상했다.

이후 몇 달 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후 개성으로 이송됐고 당시 유엔군은 조씨를 의용군에서 탈출한 군인으로 보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조씨는 수차례의 조사 후 혐의가 없어 풀려났지만 졸지에 고아가 됐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주에서 자원입대에 나선 훈련소와 하사관학교를

거쳐 제9사단에 하사로 임관했다.

‘백마부대’로 불리는 제9사단은 1952년 당시 강원도 철원군에서 백마고지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곳에 분대장으로 투입된 조씨는 매일 포화 속에서 분대원들과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53년 7월 6·25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됐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씨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으로 갈 수 없게 됐다.

이후 살기 위해 군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2남1녀를 키우며 1978년 9월 육군 상사로 전역했다.

시간이 지나 1983년 남북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조씨는 방송에 명찰을 달고 참석했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선택되지 못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조씨는 2007년 개성 관광 당시 북한 땅을 밟은 것을 마지막으로 당시 찍은 사진을 통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조씨는 “어렸을 적 누나가 도끼로 산에서 나무를 깨우다 실수로 발등을 찍어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흉터가 기억난다”며 “지금은 가족들 얼굴을 잊어버렸다. 살아 있을지 궁금하다”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이어 “내 기억이 이리 가물거물한데 북한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 얼굴을 보고 고향 땅도 밟고 싶다. 하다못해 찍었던 영상과 책을 가족의 후손에게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주성학기자

원효사 상인들 ‘손실보상금’ 등 소송 ‘희비’

법원 “보상금 증액”...‘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주 대상이 되자 상가 보상 및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승·패소가 엇갈렸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민수 부장판사)는 30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 마을지구 내 부동산 공동소유주 3명이 국가(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송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차액인 35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지역에 건축물과 지장물을 소유하던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재결을 거쳐 결정된 손실보상금 8천400여만 원이 너무 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 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측에 보상금을 다시

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들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무등산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선 원고 패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원고들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효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영기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버스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학동4구역 재개발 인가 문제 없다”

1·2심 법원 모두 무효확인 소송 기각

광주 동구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인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30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개발 비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 당시 비용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동의를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소유자 동의는 인가처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부 건축물 존치 결정에 따른 분담금 증가 사유도 액수 변경 가능성이므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조합이 추진 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A 업체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시정비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 인가가 유죄 확정판결 11년 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재개발지역은 2021년 6월 9일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사재서비스를 받던 처서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학동 붕괴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안재영기자

광주 남구의회 의장 경선 오는 3일로 연기

민주당 중앙당, ‘성희롱 의혹’ 의장 후보 A 의원 등 조사

‘성희롱 의혹’을 받는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이 후보인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 논란이 일면서 남구의회 의장 민주당 경선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3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당초 후보인 의장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이 29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소속 윤리감

찰단이 광주 남구의회를 방문해 A 의원과 환경아 남구의회 의장 및 사무국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사무국 소속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이 지난 28일 제9대 남구의회 후보인 의장 선거 경선 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단은 ‘성희롱 의혹’ 관련 문제 처리 진행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며 29일로 예정됐던 남구의회 의장 선거를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 오는 7월 3일로 미룬다고 통보했다.

환경아 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중앙당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남구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보는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주성학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